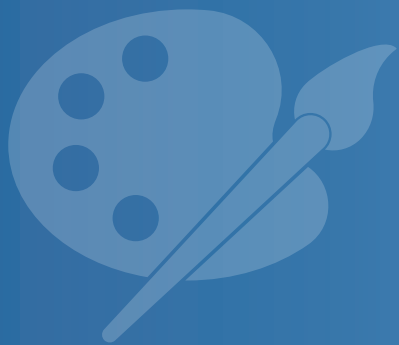


어느 화가의 마지막 소원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



한윤기 화백이 2013년 12월 서울의료원 병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에서 만난 암 환자분 미술 전시회에서 뵈 적이 있는데요...’ 이름이 낯익었다. 순간 기억이 번쩍 났다. 정확히 12년 전 서울의료원 취재 당시 만난 간호사 분이였다.

당시 나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부 경찰팀 막내 기자였다. 그때 회사에선 ‘웰다잉’ 시리즈를 연중 기획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엄하게 끝낼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다. 기존에 보도된 다른 시리즈 기사를 본 간호사 분이 회사로 제보를 했다.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한 분이

그런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취재를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데스크로부터 지시를 받은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서울의료원으로 향했다.

기사의 주인공은 화가 한윤기 씨였다. 의료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환자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그가 눈에 띄었다. 그는 전시장 입구쪽에 서서 방문객에게 연신 인사를 하고 있었다. 눈을 잘 뜨지 못했지만 계속 고개를 숙였다. 그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였다.

폐암 말기의 고통 속에서도 한 씨는 품위를 잃지 않았다. 호스피스 병동의 동료 환자들은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

을 응시하며 제각기 얇은 미소를 보였다.
일부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씨는 경력만 40년이 넘는 화가였다. 하지만 그는 본래 사진작가였다고 한다. 1970년 부터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돌며 자연을 피사체로 삼아 사진을 찍었다. 생동감 넘치는 사진에 푹 빠져 있던 그는 단순히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때부터 한씨의 그림 인생이 시작됐다. 먹을 갈아 한점한점 그려낸 한 씨의 300여점 작품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한 씨는 1988년 충남 예산 ‘윤봉길의 사기념관’ 개관 때 자신의 작품 일부를 전시한 적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작품만으로 꾸린 정식 전시회는 열지 못했다. 2남 2녀의 자녀를 둔 한 씨는 한평생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주목받는 화가는 아니었기에, 사랑하는 그림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이삿집 센터 일을 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붓을 들었다. 삶은 힘겨웠지만 그는 즐겁게 그려 나갔다. 자신의 작품을 아꼈던 그는 한 번도 그림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 씨는 예술가지만 또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했다.



한윤기 화백이 2013년 12월 서울의료원 병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사진을 찍고 있다.

2004년 한 씨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나날이 고통은 더 심해졌지만 한 씨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쉬지 않고 작품을 그렸다. 암은 그의 그림도 변화시켰다. 투병에 돌입한 한 씨는 평소 그림과 비교해 더 굵은 선을 썼다. 병마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한 씨는 투병 중에도 그렇게 10개의 작품을 더 창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 자신이 자연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자연을 사랑했던 그다.

9년 간 투병했던 한 씨는 2013년 말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2013년 12월 서울의료원 1층 로비에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가 한윤기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병원에 온 지 불과 2주 만에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몸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번 씩 열리는 미술치료 시간은 그에게 활력을 줬다. 그의 그림은 환자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의 놀라운 그림 솜씨를 알아본 병원 측은 한 씨를 위해 병원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내가 취재했던 바로 그 전시회였다.

전시회를 위해 서울 등촌동 한 씨 자택에 있던 그림 50점이 병원 로비로 옮겨졌다. 대부분 자연을 담은 작품들이었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떼와 짙은 안개 속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산의 모습, 산 한 가운데에 솟아 있는 초가집의 형

상 등이다.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와 링거를 꽂고 지나가던 환자, 피곤해 보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했다. 역린처럼 번져가는 병과 싸우는 그들의 표정에 잠시나마 편안함이 깃드는 시간이었다. 6시간 동안 열린 전시회가 끝나자 그는 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었다. 여한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시회 이틀 뒤 한 씨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연을 떠나 영면했다. 그의 영정 옆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자락을 낚시꾼과 뱃사공이 바라보는 그림이 자리했다. 그는 전시회에서 뱃사공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했었다.



한윤기 화백의 그림들. 갈매기떼나 웅장한 산세 등 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다.

기자가 된 이후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인생이 마음대로 잘 풀려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다만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쉽게 찾기 어려웠다. 나는 병상에 누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림 얘기만 하면 또렷해졌던 한씨의 눈빛을 가끔 떠올린다. 그렇게 꿈을 놓지 않고 살다보니 결국 전시회라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됐다. 기자로서 그 여정을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다.

그동안 정치부와 사회부, 경제부와 산업부 등을 거치면서 술한 권력자와 조우

했다. 국회의원부터 장관, 청와대 참모들, 잘나가는 대기업의 수뇌부를 취재하다 보니 마치 그들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 취재원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그들도 내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정보를 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골라 만나던 때가 있었다. 잠시 즐겁고 재미있었지만 곧 공허함이 몰려왔다. 권력이란 것은 마치 불나방 같아서 금세 피어났다가 사라졌다. 활

국민일보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001면 중판

폐암 고통 속 한 점 한 점-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 생의 끝자락, 위로를 전하고 떠나다

호스피스 병동서 이뤄진 꿈
어느 동양화가의 '벨다임'

눈을 잘 뜨지도 못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나지막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에 찾아온 관람객을 그는 정중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호스피스 병동의 동료 환자



20일 서울 시내동 서울의료원 1층 로비에서 열린 한윤기 화백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에서 병원 직원들이 한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림(오른쪽 위)은 한 화백이 지난 4월 완성한 마지막 유화이다. 김지훈 기자

들은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응시하며 제각기 열은 미소를 띠거나 눈시울을 흘렸다. 위안과 감동을 받은 관객이 역력했다.

다시마까지 폐암 말기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열지 않았던 동양화가 고 한윤기(77·사진)씨. 40년 경력의 화가였지만 원래는 사진작가였다. 1970년부터 카메라를 한 대 사서 전국의 바다와 강, 산을 돌며 렌즈에 담았다. 사진에 미쳐 있던 어느 날 '자연'을 직접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붓을 들었다. 한 점 한 점, 먹을 갈아 그려낸 300여점 작품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품에서 그렸지만 주목받는 화가는 아니었다. 88년 충남 예산 '운봉 김의사기념관' 개관 때 작품을 전시시킨 했지만 정식 전시회는 열지 못했다. 2년2년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도 힘에 부쳤다. 어찌가 이십집 날라주고 번 돈으로 가족을 먹였다. 낯선 집 나쁘고 밤엔 그림을

40년 동안 300여점 그렸지만 생계 매달려 전시회 못 열어 병원, 임종 앞서 전시회 마련 "최고의 영광이었다" 감격
영정사진 옆에는 풍경화 1점

그렸다. 그림을 한번도 팔지 않았던 한씨는 가장이자 예술가로 평생을 동분서주했다.

그림 인생이 위기에 처한 건 2004년이다. 폐지 부분이 쓰러 찾아간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한씨는 "어파서 병원에 있지만 나무 꽃 강을 그리면 내가 자연의 한복판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투병 중에 그림 작품 10점은 이전 그림보다 산이 더 높고 더디다. 한 작품에 산과 바다, 하늘과 강이 함께

일었다. 아들 권태(57)씨는 "가족에게 신세만들려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었지만 마음 속 안타까움은 우리보다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9년간의 투병 끝에 지난 달 20일 서울 시내동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2주 만에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일주일엔 한번씩 찾아오는 '미술치료' 시간은 그에게 또다른 삶의 이유였다. 그의 놀라운 그림 솜씨를 본 호스피스원화의료센터 운영관 코디네이터는 한씨 가족과 상의한 끝에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서울 동촌동 한씨 자택에 있던 그림 50점이 공수돼 전시회가 열렸다. 방문객을 찾고 지나가던 환자, 행색어려운 미는 보호자, 피곤해 보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했다.

한씨를 기억하고 그림을 감상했다. >>>면 계속
박세환 기자 foryou@kmb.co.kr

한윤기 화백의 마지막 전시회를 다룬 2013년 12월24일 국민일보 지면, 이례적으로 1면과 2면을 할애해 한 화백의 일생과 전시회를 소개했다.

짜 만개했다가 지는 그런 권력을 수없이 목도하며 허탈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부터가 스스로 취재원의 급을 나누니 쉽게 티가 났고, 당연히 취재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똑같은 자리, 계속 사람만 바뀌면서 나는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다 깨달음을 얻었다.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근불가원 관계라지만, 그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기사를 쓸 만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도 진심을 기울이자. 기사만 쫓으면 기사는 달아나고, 사람을 쫓으면 기사는 따라온다. 어느 선배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 한 편에 자리했던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결국 기자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대중이 원하는 건 오히려 크고 거창한 뉴스나 기사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 기사나 잔잔한 미담 기사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걸 보면 권력 위주의 기사만이 주목받고, 좋은 기사로 평가됐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론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도. 오히려 그렇게 감춰진 이를 발굴해서 대중에게 알리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도 좋은 기자의 덕목인 것 같다.

당시 한 씨의 전시를 기획했던 간호사분은 12년 만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환자분이 신문에 전시회와 자신의 모습이 나와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멋있게 이루시고 이를 후에 돌아가셨어요. 기자님,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굉장히 큰 선물과 의미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음 속에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올라왔다.

나는 왜 기사를 선택했는가. 왜 나는 기사를 계속하고 있는가. 기자로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언론 혐오의 시대, 기자로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회의하던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